



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 불교 종단협의회와 ‘자살예방 협력회의’ 개최

- 불기 2570년 ‘부처님 오신 날’(5.24) 계기, 불교계 관계자와
자살예방 협력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

□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, 이하 추진본부)는 5월 19일(화), 불교종단협의회*에서 종단 관계자와 함께 ‘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회의’를 개최하였다.

* 불교 종단 간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계의 현안 공동 협의 및 불교 증흥과 발전,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1967년 창립

□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불교 최대 경축일인 불기 2570년 ‘부처님 오신 날’(5월 24일)을 계기로 봉축 법요식, 종교 문화행사 및 각종 상담 활동에서 스님과 신도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활동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추진본부는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‘생명존중 범회안내문(안)’이 지역 교구 등에서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, ‘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’의 홍보와 함께 불교방송·불교 매체 등을 통한 생명존중 메시지 전파를 요청하였다.

○ 아울러, 지역교구가 지자체의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, 자살 고위험군의 마음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 확대에도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□ 불교종단협의회 관계자는 “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,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어두운 세상을

밝히는 연등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겠다”고 화답하며,

○ “특히 전국 800만 불자와 25개 교구본사 및 2만여의 사찰이 참여하여 생명을 살리고 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종단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□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관계자는 “올해 봉축 표어처럼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”이므로, “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불교계와 상시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, 종교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실질적인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” 라고 밝혔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	
---	--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장	이효식 (044-200-6369)
	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사무관	김봉주 (044-200-6387)